

## 29 자동차 조립 근로자에서 발생한 위장관 기질종양

성별	남성	나이	39세	직종	자동차조립직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 1 개 요

근로자 ○○○는 1993년 12월(23세) □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부서에서 근무하던 중 2009년 7월경 복통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위장관 기질종양을 진단받고 소장 부분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2009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항암제(Glivec)를 투약하였다.

### 2 작업환경

근로자는 1993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자동차 조립부서 완성반에 근무하면서 완성차 조립업무 마무리 단계의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주 업무는 파워오일, 브레이크액, 연료(휘발유 및 경유), 부동액, 에어컨냉매 주입 등이었다. 2009년 4월부터는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장으로부터 넘겨받은 2007년 상반기부터 2009년 하반기까지의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프론트 도어 취부, 브레이크 주입, 디젤연료 주입, 냉매 주입 공정에서 혼합유기용제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 한편 근로자의 근무부서에서 석면 또는 전리방사선의 사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 암

###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유기용제)

### 5 의학적 소견

2009년 7월경 복통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CT 검사를 통해 위장관 기질 종양을 진단받

고 동월 소장 부분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며 2009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항암제 (Glivec)를 투약하였다.

## 6 고찰 및 결론

위장관 기질종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서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으나, 다른 위장관 종양의 발암 물질로 석면, 전리방사선이 알려져 있다.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의 직업적 유해 인자(석면, 전리방사선) 노출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끝.